

#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후기 빗살무늬토기의 편년과 전개양상

- 경기 ·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

Chronology and Development of Comb-Pattern Pottery in Central Region during Late Neolithic Age

구자진  
IH 토지주택박물관 학예사

- I. 머리말
- II. 후기 빗살무늬토기의 인식
- III. 후기 빗살무늬토기의 검토
- IV. 후기 빗살무늬토기의 전개양상
- V. 맺음말

# 국문 요약

중서부지역의 신석기시대 시기구분은 궁산 문화의 설정과 편년작업을 통해 기본적인 티대가 만들어졌지만 세부적인 편년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였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서부 지역에서 다수의 신석기시대 마을유적이 조사되어 세부적인 편년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하지만 조사된 유적과 연구가 일부시기에 집중되거나, 특정 토기양식에 대한 쟁점만 부각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세부적인 편년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등장하게 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 신석기시대 후기로 판단되는 유적의 조사가 증가하고, 대부분의 유적에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후기 빗살무늬토기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경기와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역의 후기 빗살무늬토기에 대한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후(말)기 유적의 상대편년에 따른 빗살무늬토기 양상을 살펴 본 결과,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까지는 후기, 기원전 2,000년 이후는 말기로 시기구분을 하였다. 후기는 구분문계와 정형화된 사격자문의 존재유무에 따라 구분문계는 있고 사격자문이 없으면 전반, 구분문계가 없고 사격자문이 있으면 후반으로 세분하였다. 사선대문(띠대문)은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말기까지 이어지는데, 후기에는 문양대의 상하 간격이 좁은 정형화된 양상을 보이다가 말기로 가면서 문양대의 상하 간격이 넓어지고 횡방향으로의 시문방향도 불규칙하게 된다. 후기와 말기의 구분은 이중구연토기와 공열문 빗살무늬토기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중부지역에서 이중구연토기와 공열문 빗살무늬토기의 출토 예가 매우 소수여서 향후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보아야겠지만, 중부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가장 늦은 단계에 등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후기 유적의 빗살무늬토기는 수량도 많지 않고 작은 편으로 출토되어 전체적인 빗살무늬토기의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남부지역의 후기와 말기처럼 표지적인 유물을 설정하지는 못하였다. 중부지역의 신석기시대 후기 빗살무늬토기를 통해 그동안 잘 인지하지 못했던 변화상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향후 중부동해안지역 혹은 충청내륙지역의 후(말)기 빗살무늬토기에 대한 검토도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주제어 :**신석기시대, 편년, 후기, 중부지역, 이중구연토기, 공열문 빗살무늬토기

## I . 머리말

중서부지역의 신석기시대 시기구분은 궁산 문화의 설정과 편년작업을 통해 기본적인 토대가 만들어졌다. 남한지역에서는 1970~80년대에 한영희와 임효재의 연구로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편년의 큰 틀이 자리잡게 된다. 그러나 이후 중서부지역의 신석기시대 세부편년 연구는 그다지 활발하게 논의되지 못하고 임상택의 논고 외에 연구가 전무하다시피 하였다. 이는 과거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유적이 많지 않았던 원인도 있지만, 남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유적처럼 중복 혹은 충위에 따른 시기적인 선후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유적과 특징적인 토기가 확인되지 않아 연구의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면서 중부서해안지역과 충청내륙지역을 중심으로 다수의 신석기시대 마을유적이 조사되어 세부적인 편년연구에 활력을 불어 넣었다. 하지만 조사된 유적과 연구가 일부 시기에 집중되거나, 특정 토기양식에 대한 쟁점만 부각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세부적인 편년안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등장하게 되었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부지역 후(말)기 빗살무늬토기에 대해서는 구분계에서 동일계로 시문부위의 축소, 문양의 난삽화 혹은 무문양의 증가라는 전반적인 경향성은 인정되면서도 정작 실제 발굴조사된 신석기유적에서 후(말)기로의 시기구분은 쉽지 않다. 특히, 후기로 인식되고 있는 유적들은 조개더미 유적을 제외하면, 집 자리 혹은 움구덩, 야외 화덕시설 등의 유구에서 출토되는 빗살무늬토기의 양이 매우 적어 편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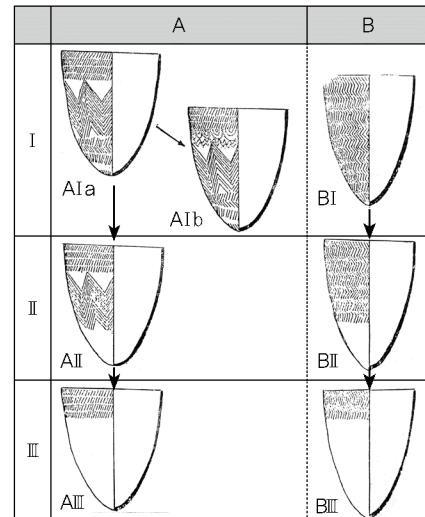
그러나 최근 신석기시대 후(말)기로 판단되는 유적의 조사가 증가하고, 대부분의 유적에서 방사성탄소연대측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후기 빗살무늬토기에 대한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중부지역의 빗살무늬토기가 후기와 말기로 세분될 수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중서부지역 중 최근 신석기시대 후기로 판단되는 유적이 다수 확인된 경기와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겠다.

## Ⅱ. 후기 빗살무늬토기의 인식

중부지역의 신석기시대 편년은 한영희와 임효재에 의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다. 한영희(1978)는 중·서부지역의 빗살무늬토기를 구연부와 동체부, 저부의 3부위에 서로 다른 문양을 시문한 I식토기, 토기 전면을 하나의 시문권으로 보고 문양을 시문한 II식토기, 빗살무늬토기 계통의 무문토기인 III식토기, 토기 외면에 한 줄의 용기문을 시문하거나 구연부에만 문양을 시문한 IV식토기로 구분하였다. II식토기는 다시 서로 다른 종류의 문양을 배합한 IIa식과 전면에 횡주어골문을 시문한 IIb식으로 세분하였다. 이중 IIb식토기, III식토기, IV식토기를 III기(후기)로 편년하였다.

이후 연구 성과들을 반영하여 신석기시대 중·서부지역의 토기를 전형적인 3부위 문양을 암사동 I식(또는 궁산식), 종속문 추가를 암사동 II식, 단사선문계의 구연부 문양 잔존을 암사동 III식으로 지칭하였다. 본고에서 다루고자하는 후기 빗살무늬토기의 경우, 대동강·재령강유역은 금탄리 II식, 서해도 서는 시도식으로 바뀌었으나 한강유역은 가장 보수적이라 구연부 단사선문이 후기까지 잔존하였다고 보았다. 결국 중서부지역의 신석기시대 후기는 지역성이 강화되는 시기로 대동강은 금탄리 II식, 한강유역은 암사동 III식과 단사선문계 전통이 지속되며, 한강 내륙은 내평식, 서해안과 서남도서는 시도식, 암사동 III식, 율리식, 북촌리식, 금강유역은 금강식토기가 특징적인 토기로 파악하였다(한영희 1996).

임효재(1983)는 중서부지역의 빗살무늬토기를 기표 전면에 문양을 시문한 I류, 저부 문양을 생략한 II류, 저부와 동부 문양을 생략한 III류로 나눈 후, I류가 암도적으로 많은 암사동유적이 III류가 출토되는 시도 조개더미 유적보다 방사성탄소연대가 이르다는 점을 근거로 시문면적의 축소화 경향이 편년적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더불어 문양 구성에서 구연부와 동체부에 각기 다른 문양을 갖는 구분계, 동



[그림 1] 서한토기 변천모식도(임효재 1983)

일한 문양을 갖는 동일계로 구분하였다. 결국 시문부위의 생략화, 구연부와 동체부 문양의 구분, 비구분이라는 기준에 따라 각 형식을 설정하였다. 이 중 제4군으로 분류된 구연부에만 단사선문이나 어풀문을 시문된 토기를 신석기시대 후기의 빗살무늬토기로 편년하였다.

1970~80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된 중서부지역의 신석기시대 편년은 임상택에 의해 체계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는 기존 한영희와 임효재에 의해 이루어진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편년안을 기본 골격으로 유물의 공반관계와 그에 대한 비교를 통한 빈도순서 배열 및 교차편년을 시도하여 중부서해안지역의 신석기시대 편년을 세롭게 정리하였다(임상택 1999a). 그는 후기 단계는 서해안식 횡주어골문이 유행하는 시기로 단치시문에서 다치시문으로 변화가 인정된다고 보았다(임상택 1999b). 이후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I ~IV기로의 세분된 편년안을 제시하였다. 편년 기준은 각 지역 내에서 시간적 변화상을 잘 반영한다고 여겨지는 토기 문양의 형태, 배치, 구성이라는 3가지 변수를 근거로 하였다. 후기에 해당하는 III기는 기면에 같은 문양이 시문되는 동일계 토기를 상정하고, 말기에 해당하는 IV기는 문양이 단순화하고 난삽화된 시기로 판단하였다(임상택 2006). 최근에는 새로운 마을유적 조사와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 축적에 따라 기존 자신의 편년안을 세분하고 수정하였다. 중부서해안지역 제 유적 간 뚜렷한 양상의 차이를 동일 지역 내 시기차로 인식한 것이다. 이에 중부서해안지역을 크게 전기-중기-후기-말기 네 단계로 분기하고 그 내부에서 다시 세분하였다. 그리고 중·후기단계의 횡주어골문을 재검토하면서 기존의 단·다치 구분 외에 시문각도(예각 또는 둔각)의 차이를 고려하여 ‘예각시문 전통’과 ‘둔각시문 전통’이라는 일종의 패턴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임상택 2010 · 2012).

다나카 소우이치(田中聰一 2000)는 문양 계통론 및 형식학적 편년을 통해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 문양 변화에 대한 설명을 시도하였다.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는 6기로 세분되고 대동강유역과 한강유역 · 서해도서지역은 각각의 지역적 차이를 보이며, 중기 이후로 그러한 지역성이 토기 문양에서 나타난다고 보았다. 한강유역 · 경기만지역은 대체로 종주어골문 단계→종주어골문계집선문+단치횡주어골문 단계→다치횡주어골문+전면횡주어골문 단계→서해안식횡주어골문 단계로 보았다. 단 후기는 세분하지 않고 한 시기로 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1] 신석기시대 중부서해안지역 상대편년(임상택 2012)

분기		주요 유적	주요 특징	연대 (cal B.C.)	분기명
I기 후반 (전기)		운서동 I, 오이도 안말, 까치산폐총 Ⅲ~Ⅹ 층	구분계 중심(3부위), 단사선문, 조문, 종주어골문	4,000~ 3,600	운서동기
II기 (중기)	전반	능곡, 신길, 시도Ⅱ지구	구분계 중심(2부위), 단사선문, 찰과상 다치횡주어골문	3,600~ 3,400	능곡기
	후반	삼목도 Ⅲ, 까치산폐총 V~VII층, 시도지구 일부, 가도 하층, 성내리, 풍기동	구분계, 동일계, 단사선문, 서해안식 횡주어골문, 구연한정 단사선문	3,400~ 3,100	삼목도기
III기 (후기)	전반	는들, 증산동, 을왕동A,B 고남리A	대죽리, 가도?, 고남리A 동일계 중심, 는들식 단치횡주어골문	예각 단,다치 횡주어골문, 다단 단사선문 잔존 3,100~ 2,600	는들기
	후반	운북동 제자점, 남북동, 고남리B, 화성 가재리?	동일계 중심, 예각 서해안식 횡주어골문	2,600~ 2,300?	운북동기
IV기(말기)		오이도 뒷살막, 을왕동I	동일계 중심, 문양의 난삽화, 무문양화	2,300~ 1,500?	뒷살막기

양성혁(2001)은 서해안지역 조개더미 유적에서 보이는 다양한 토기 문양은 시기 차가 아니라 지역차로 보았다. 그는 기존 편년안에 따라 단순히 신석기시대 후기로 보았던 서해안지역 신석기시대 유적을 재검토하여 각 토기형식이 지역성을 띠고 있다는 주장이다. 즉 경기만 북부지역은 동일계 단치 횡주어골문토기가, 경기만 중부 지역은 구분계토기가, 경기만 남부지역은 동일계 다치 횡주어골문토기가 중심이라 판단한 것이다. 또한 세 지역 모두에서 기원전 3,500~3,000년의 절대연대값을 보이는 유적이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양 차이가 단순히 시간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기에 다양한 문양의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혜원(2014)은 중서부지역 중·후기 횡주어골문에 대한 각도 패턴을 제시한 임상택(2012)의 주장에 대해 ‘둔각 패턴’은 특정 시기 및 지역에 한정하여 등장하는데 반해, 그 외의 패턴은 중·후기 동안 시공간을 초월한 여러 시기 동안 다양한 지역에서 확인되며, 후기 전반의 영종도 지역은 두 가지 패턴이 모두 확인되는 형태를 띠고 있어 그가 제시한 각도 패턴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를 계측 단위적 속성을 통계적으로 처리하여 세부 편년을 시도하였다. 신석기시대 중기 이후의 횡주어골문 문양 조성을 검토하여 총 5단계로 구분하였다. 1단계에서 3단계까지는 횡주어골문의 예각화, 구연한정 시문의 증가 경향, 문양시문부위 축소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4단계에서 5단계는 문양소의 길이 축소, 간격 증대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3단계와 4단계는 1~3단

계의 변화 경향인 예각화나 4~5단계의 변화 경향인 문양소 길이와 간격의 변화로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토기 문양 상에서는 1~3단계의 중기와 4~5단계의 후기로 뚜렷하게 구분된다고 보았다. 그가 후기로 판단한 4단계는 구분계가 거의 확인되지 않으며 지역차가 뚜렷하며, 횡주어골문 시문방법은 단치 침선이 추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5단계는 이전 단계에 비해 문양소의 길이가 짧아지며 비교적 문양소의 간격이 넓고 문양 형태가 정연하지 못하다고 보았다. 결국 기존 편년안과 큰 차이점은 없지만, 횡주어골문의 세부적인 변화상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동주(2014)는 남부지역에서 율리식토기로 불리는 이중구연토기가 성행하는 시기를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말기로 판단하였다. 이에 남한지역 전체 신석기시대 말기양상을 검토하고자 남부지역 말기단계 분석을 통해 시기구분의 근거를 마련한 후, 중부서해안지역을 비롯한 다른 지역에 이를 적용시키고자 하였다. 결국 남부지역 신석기시대 말기를 4단계로 구분하여 기존의 다양한 문양요소를 가진 신석기문화가 퇴락하고 새로운 이중구연토기나 구연부 아래에 2열을 배치된 수평상의 단선문과 구연부에 시문된 2열의 원형 자돌문토기가 공통적으로 전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중부서해안 도서지역의 경우는 기형과 문양요소가 말기 3단계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고, 타 지역과 같이 구연부에 2열과 1열로 시문된 원형 자돌문토기가 말기 1단계부터 나타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신석기시대 말기에 해당하는 유물의 수량이 적고 남해안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유물 분석을 통한 단계구분 기준을 타 지역의 극소수 출토유물에 적용시키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특히 남부지역 말기의 표지유물인 이중구연토기는 중부지역에서 그 출토량이 매우 극소수이다. 또한 단계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유적에서 동일한 성격의 유물이 출토되었을 때, 비로소 의미를 지니며, 지역에 따른 빗살무늬토기의 변화상도 상당히 이질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재고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

### III. 후기 빗살무늬토기의 검토

중부지역의 신석기시대 후기 유적은 기존의 빗살무늬토기 연구 성과와 최근 발굴 조사된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을 통해 대상유적을 선정하였다. 또한 절대연대 값이 측정되지 않았거나 유물의 출토량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된 유구와 유물이



[그림 2]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후(발)기 유적 위치도

1. 연천 합수리, 2. 연천 선곡리, 3. 포천 거사리, 4. 파주 당동리, 5. 양주 옥정동, 6. 김포 신곡리, 7. 의정부 신곡동, 8. 남양주 덕송리, 9. 남양주 지금동, 10. 남양주 호평동, 11. 남양주 덕소리, 12. 구리 토풍동, 13. 시흥 장현, 14. 안산 흘곶, 15. 성남 동판교/서판교, 16. 광주 신대리, 17. 여주 양귀리, 18. 용인 상현동, 19. 용인 양지리, 20. 용인 신갈동, 21. 화성 기재리, 22. 평택 칠원동, 23. 안성 이현리, 24. 인천 원당동·마전동, 25. 인천 경서동, 26. 인천 검암동, 27. 인천 구월동, 28. 인천 중산동, 29. 인천 운북동, 30. 인천 남북동, 31. 인천 을왕동, 32. 인천 소야도, 33. 인천 모이도, 34. 시흥 오이도 뒷살막, 35. 인천 불로동

대상유적으로 선정된 유적과 유사할 경우 함께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기본적으로 신석기시대 유구(집자리, 야외 화덕시설, 움구덩 등)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유물산포지 등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유적은 제외하였다.

## 1. 경기북부지역

### 1) 연천 합수리/선곡리 유적

합수리 유적은 임진강의 지류인 마거천이 북에서 남으로 흘러 임진강으로 합수되는 지점에 형성된 충적대지에 입지한다. 신석기시대 유구로는 집자리 2기가 조사되었다. 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골문, 사격자문, 종사선문, 능형집선문(?) 등의 문양이 확인된다. 횡주어골문과 집선문 계열은 다치구로 시문되었으며, 문양의 정연성은 떨어진다.

선곡리 유적은 선곡제의 북단과 연접한 제2단구의 서쪽 경사면과 정상부 평탄면 일부를 포함하고 있어 일대를 조망할 수 있는 비교적 고지대에 속한다. 신석기시대 유구로는 움구덩 1기가 조사되었다. 출토유물로는 횡주어골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와 이중구연토기가 있는데, 횡주어골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 중 구연부에 공열문이 함께 시문된 토기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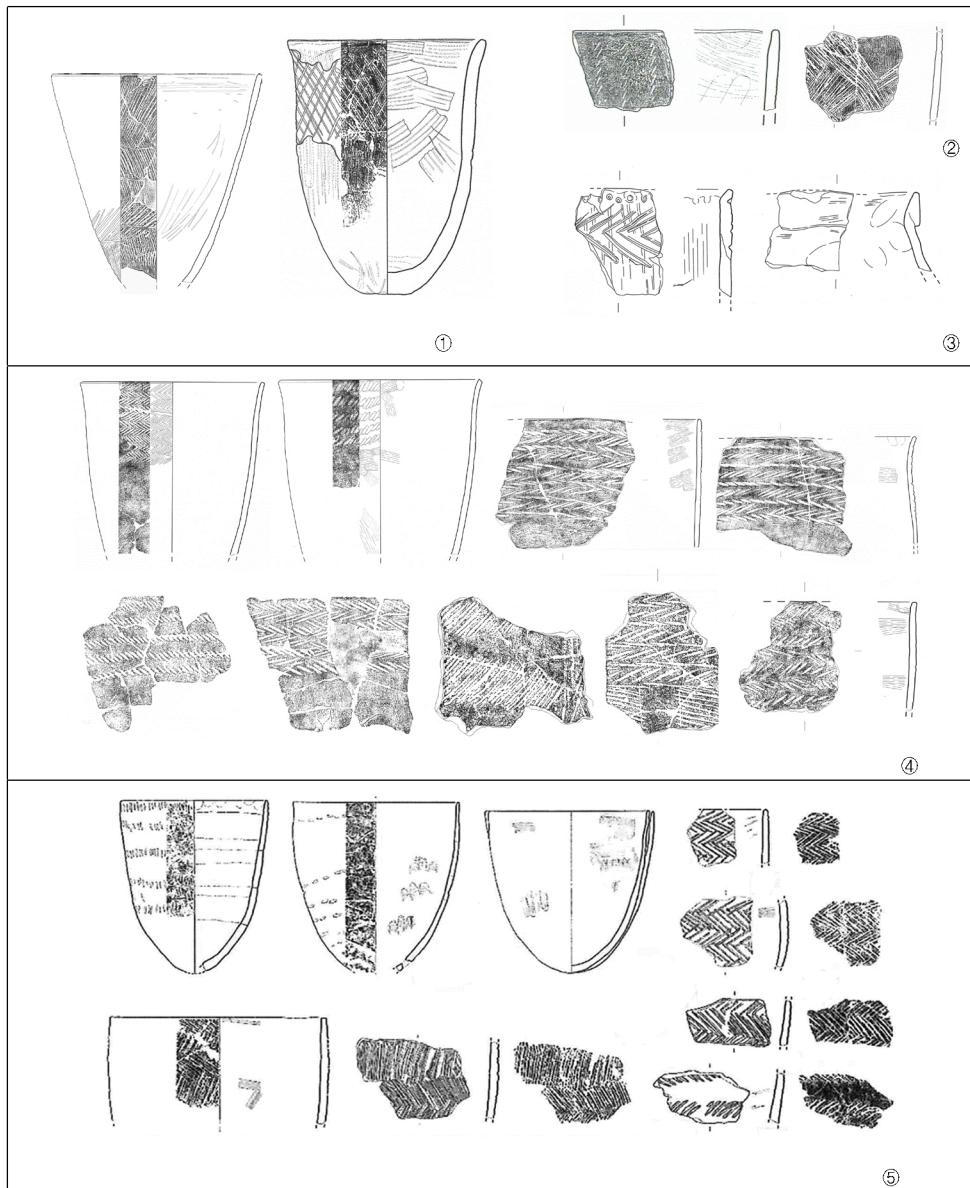
## 2) 포천 거사리 유적

거사리 유적은 포천천 서쪽에 위치하며, 천변 충적대지의 자연제방에 해당한다.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집자리 1기가 조사되었다. 빗살무늬토기 중 가장 많은 수가 확인된 것은 횡주어골문으로 문양소간의 간격이 촘촘하게 새겨진 패턴과 문양소의 길이가 짧고 전자보다 간격이 넓고 정연성이 떨어지는 패턴이 확인된다. 점열문의 경우에는 시문구의 끝이 둥근 것을 찍어 횡방향으로 무늬를 세긴 것과 점열로 횡주어골문을 시문한 것이 확인된다. 사선대문(띠대문)은 구연부에서 동체부까지 일정한 여백을 두고 횡방향으로 시문된 것과 지두문과 유사한 형태의 단사선문이 확인된다. 주목되는 토기는 횡단선문으로 일정한 여백을 구획한 후, 사이에 사선문을 채워 넣고 그 위 혹은 아래쪽에 횡주어골문을 시문한 토기이다. 이 중 한 점은 횡주어골문 + 구획사선문+기타문의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구획반복문토기(대상반복문토기)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 3) 파주 당동리/양주 옥정동 유적

당동리 유적에서 신석기시대 유구가 확인된 곳은 1·7지점이며, 집자리 4기와 야외 화덕시설 8기가 확인되었다. 조사지역의 서쪽으로 임진강이 북에서 남으로 곡류하고 문산천이 남에서 북으로 합류하는 지점의 충적지에 신석기시대 유적이 위치한다.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골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극소수의 횡선문, 횡단선(점열)문 등이 확인된다.

옥정동 유적은 청담천과 회암천 사이의 야트막한 구릉지역의 계곡부에 위치한다. 19구역의 1지점에서 신석기시대 집자리 2기와 움구덩 4기가 확인되었다.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골문만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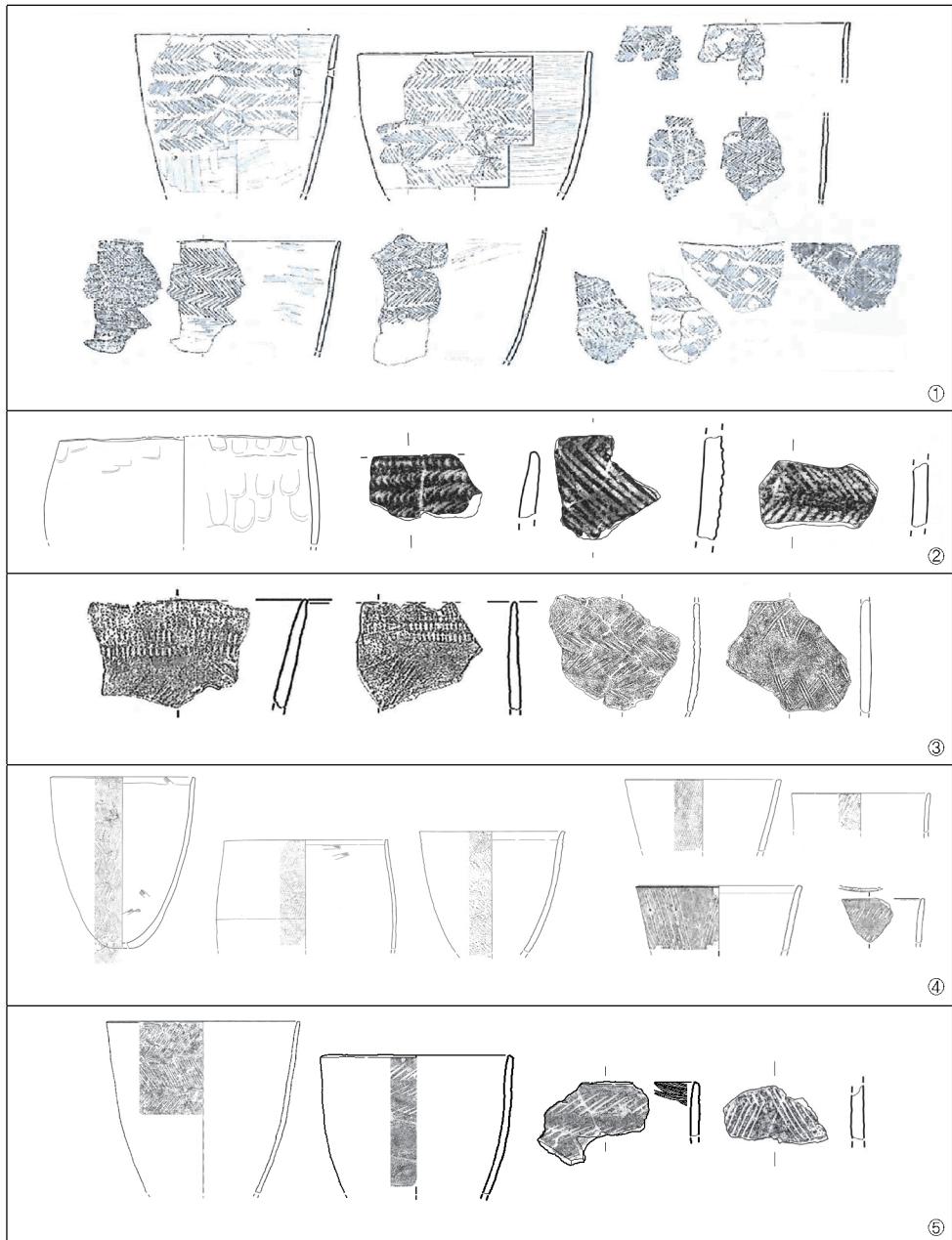


[그림 3] 연천 합수리(① · ②), 선곡리(③), 포천 거사리(④), 파주 당동리(⑤) 유적 빗살무늬토기

#### 4) 김포 신곡리/의정부 신곡동 유적

김포 신곡리 유적은 한강에서 남서쪽으로 약 2.8km 떨어져 위치한 해발 20m의 구릉정상부와 사면부에 위치한다. 신석기시대 유구는 집자리 1기, 함정유구로 추정되는 28기의 움구덩이 조사되었다.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골문과 삼각집선문, 조문, 집선문계가 확인되었다.

의정부 신곡동 유적은 동쪽의 효자봉에서 서쪽으로 뻗은 구릉지역의 경사면과 곡간부에 위치한다. 신석기시대 집자리 4기가 조사되었는데, 집자리의 평면형태는 말각방형(1호)과 원형(2, 3, 4호)으로 구분되며, 1호와 2호 집자리는 충복되었는데, 2



[그림 4] 양주 옥정동(①), 김포 신곡리(②), 의정부 신곡동(③), 남양주 덕송리(④), 지금동(⑤) 유적 빗살무늬토기

호 집자리가 후행한다. 집자리의 내부시설로는 화덕자리와 기둥구멍 등이 있는데, 1호 집자리만 구덩식 화덕자리이며 나머지는 돌두름식 화덕자리가 설치되어 있다. 집자리의 구조와 출토유물로 보았을 때, 1호 집자는 중기, 나머지는 후기로 추정된다. 2~4호 집자리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골문과 단사집선문, 사격자문 등이 확인되었다.

### 5) 남양주 덕송리/지금동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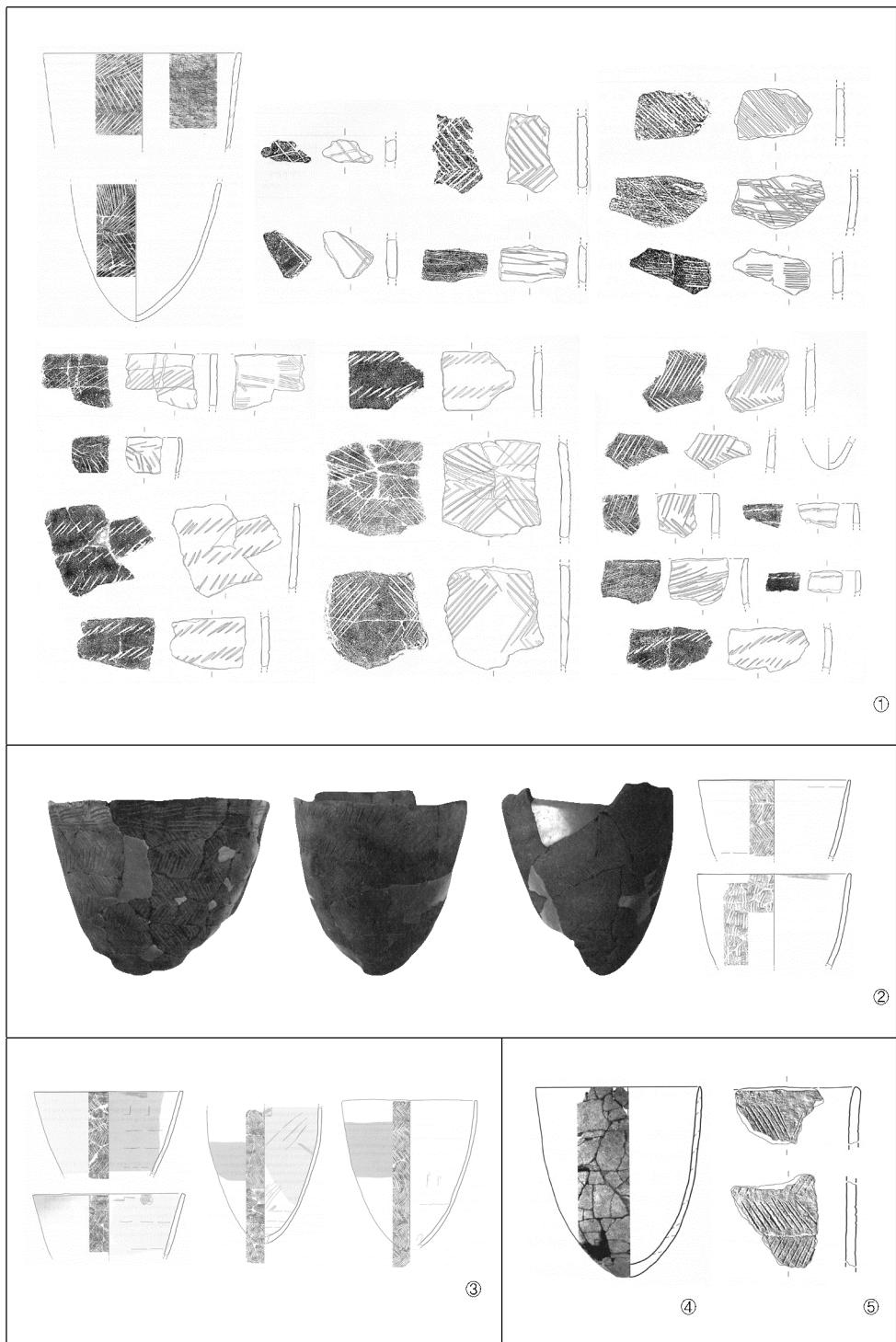
덕송리 유적은 덕송천 방면으로 뻗어있는 구릉지역의 남서쪽 말단부와 계곡부에 해당한다. 신석기시대 유구는 집자리 4기를 비롯하여 집석유구 3기, 야외 화덕시설 4기가 조사되었다.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골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집선문과 사선대문, 사격자문, 능형문 등도 확인된다. 지금동 유적은 기호문화재연구원과 중앙문화재연구원의 조사구역에서 총 3기의 신석기시대 집자가 조사되었다. 집자는 해발 40m 내외의 야트막한 구릉지역의 사면부에 위치하며,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소량의 횡주어골문과 사선대문만이 확인되었다.

### 6) 남양주 호평동 지새울/덕소리 유적

호평동 지새울 유적은 사능천의 최상류 계곡부에 위치하는데, 천마산에서 발원한 사능천은 서쪽으로 흐르다가 왕숙천과 만나 남쪽으로 흘러 한강으로 흘러든다. 신석기시대 집자리 3기와 움구덩 2기, 야외 화덕시설 4기가 조사되었다. 빗살무늬토기는 다치구의 횡주어골문이 주류를 이루며, 사선대문, 점선문, 횡단선문, 점열문 등의 문양이 확인된다. 덕소리 유적은 천마산 서쪽 수리봉 끝자락의 해발 70m 내외의 구릉지역의 곡부에 위치한다. 신석기시대 움구덩 2기가 조사되었는데, 내부시설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소량의 빗살무늬토기편만이 확인되었다.

### 7) 구리 토평동 유적

토평동 유적은 한강 본류의 충적지에 위치하며, 암사동유적과 한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다. 신석기시대 유구는 집자리 5기, 야외 화덕시설 23기, 움구덩 30기 등이 확인되었으며, 유구의 잔존상태는 좋지 않다.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골문이 주류를 이루며, 이밖에 단사선문, 점열문, 사선대문, 종선문, 횡선문, 격자문, 횡단선문, 단사집선문, 능형집선문, 종주어골문 등도 소량 출토되었다.



[그림 5] 남양주 호평동(①), 구리 토피평동(② · ③), 성남 서판교(④), 동판교(⑤) 유적 빗살무늬토기

## 2. 경기남부지역

### 1) 시흥 장현 유적/안산 흘곶 조개더미 유적

장현 유적은 해발고도 19m의 구릉 사면과 말단부 사이에 위치하며, 신석기시대 유구는 집자리 7기, 야외 화덕시설 1기, 움구덩 11기가 조사되었다. 이 중 신석기시대 후기로 판단되는 유구는 광석동 1지점 1호 집자리이며, 나머지는 중기 이전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골문 1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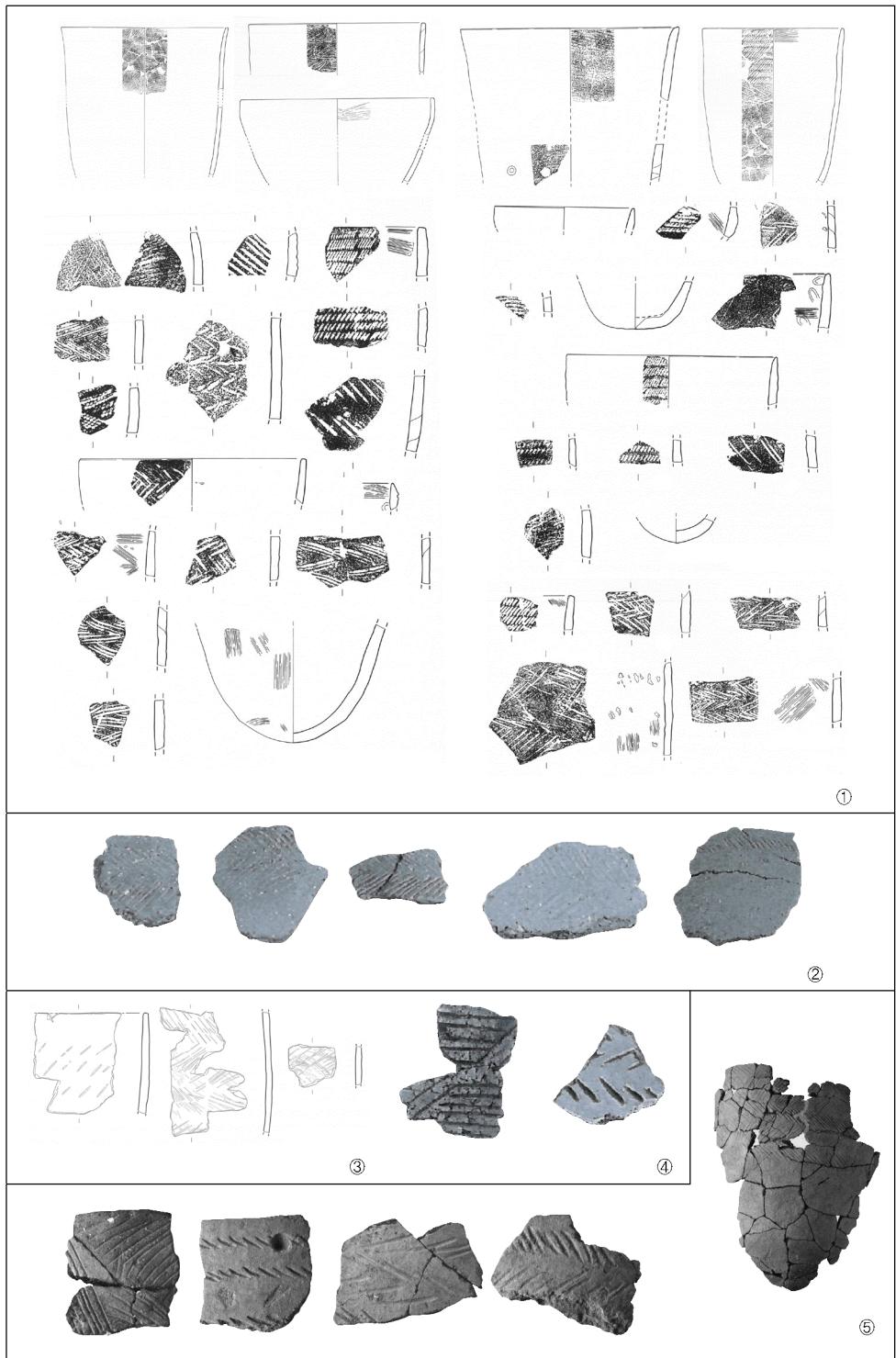
흘곶 조개더미 유적은 구릉지역에 위치하는데, 구릉지역의 단애면에 조개더미가 노출되어 있었다.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골문이 가장 많으며, 단사선문도 다수 확인된다. 대부분 동일문계토기이며, 일부 사선문, 사격자문, 중호문, 점열문, 단사집선문 등의 문양도 출토되었다. 구분문계 토기는 1점 출토되었는데, 단사집선문+횡주어골문이 시문되어 있다.

### 2) 성남 동판교/서판교 유적

동판교 유적은 해발 51m 내외의 구릉지역 서사면 중단부에서 신석기시대 집자리 1기가 조사되었다. 이외에 움구덩 9기와 야외 화덕시설 6기의 신석기시대 유구가 조사되었는데 원형, 방형, 부정형의 형태를 띠며, 집자리의 입지와 다른 충적지에서 확인되었다. 이 중 신석기시대 후기로 판단되는 유구는 24-1지점 10호 집자리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구연부와 동체부편 모두 단치구를 이용한 횡주어골문이 시문되어 있다. 서판교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움구덩 1기가 조사되었다. 유구는 4지점의 구릉 지역에 위치하며 내부에서는 단사선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 1점이 출토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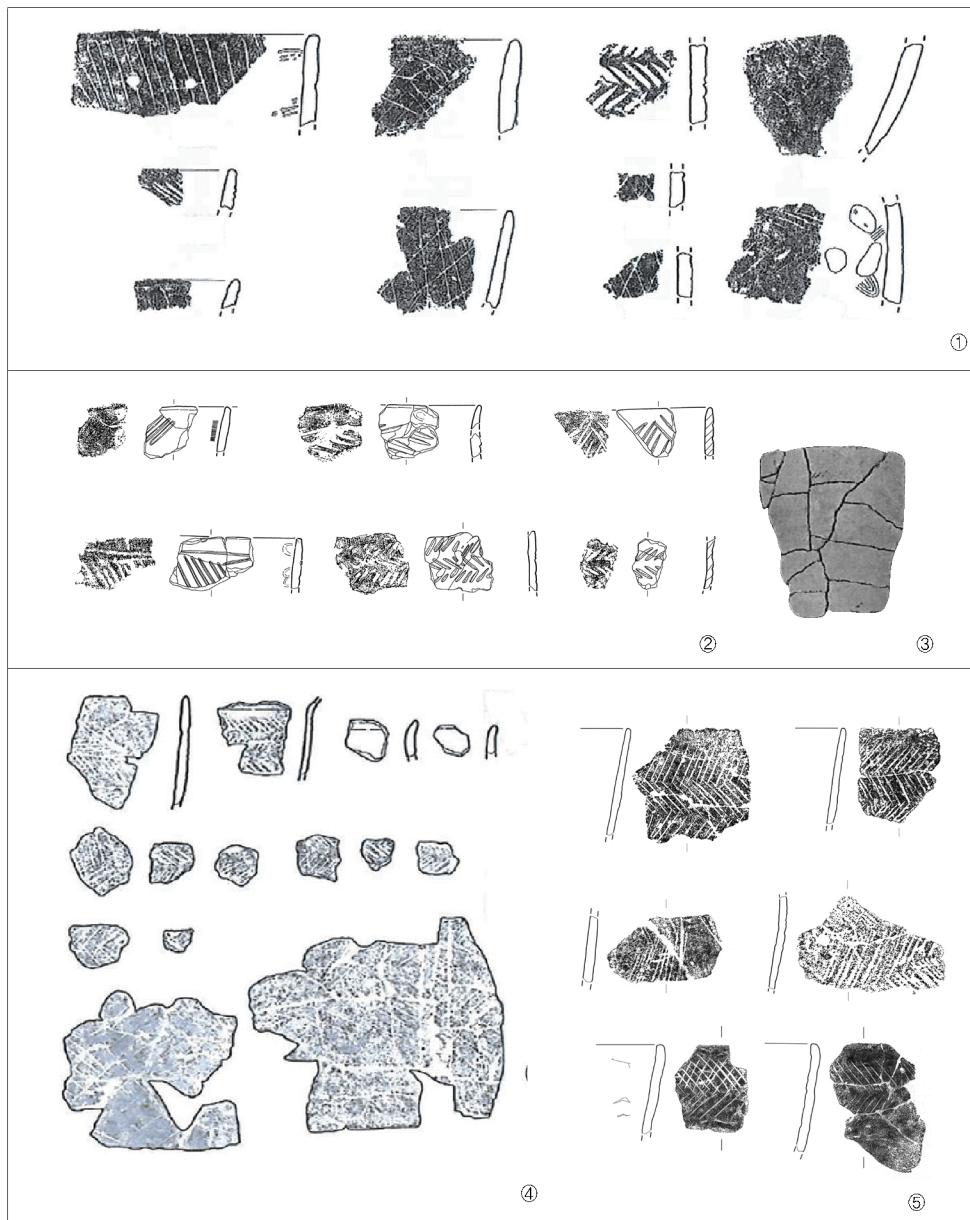
### 3) 광주 신대리/여주 양귀리/용인 상현동/용인 양지리 군량골/용인 신갈동 만골 유적

신대리 유적은 구릉지역의 사면부에 위치하며, 신석기시대 집자리 1기가 조사되었다.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대부분 횡주어골문이다. 양귀리 유적은 외부에서 조망이 안 되는 구릉지역의 곡부에 위치하며, 신석기시대 집자리 1기와 야외 화덕시설 1기가 조사되었다. 빗살무늬토기는 사선대문과 횡주어골문, 격자문 등이 있으나 매우 불규칙한 형태를 보인다. 상현동 유적은 구릉지역의 사면부에서 신석기시대 집자리 1기와 야외 화덕시설 2기, 움구덩 3기가 조사되었다.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골문과 사선대문 등이 확인된다. 양지리 군량골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집자리 1기가 조사



[그림 6] 안산 흘곶(①), 광주 신대리(②), 여주 양귀리(③), 용인 양지리(④), 상현동(⑤) 유적 빗살무늬토기

되었는데, 구릉지역의 남사면에 위치한다.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콜문과 능형집선문이 확인되었다. 신갈동 만골 유적은 구릉지역의 남사면 곡부에서 신석기시대 움구덩 1기가 조사되었다. 빗살무늬토기는 격자문과 횡주어콜문(사선문)이 주류를 이루고 동체 중반 아래에는 문양이 시문되지 않았다.



[그림 7] 용인 신갈동(①), 화성 기재리(②), 평택 칠원동(③), 인천 원당동 · 마전동(④), 경서동(⑤) 유적 빗살무늬토기

#### 4) 화성 가재리/평택 칠원동/안성 이현리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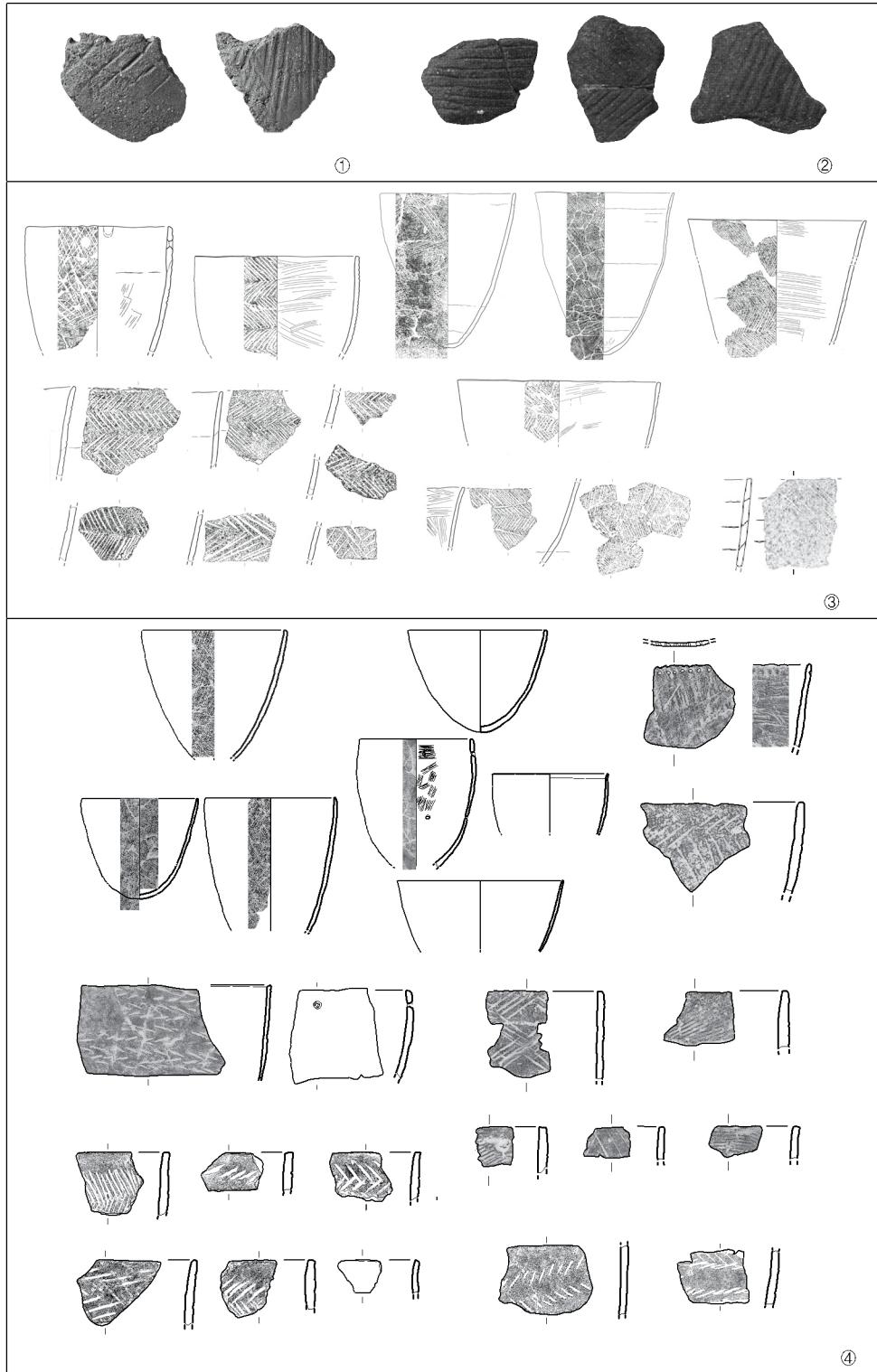
가재리 유적에서 신석기시대 유구가 확인된 지역은 야트막한 구릉이 길게 돌출된 지역의 정상부에 해당한다. 신석기시대 유구는 집자리 1기와 야외 화덕시설 1기가 조사되었다.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골문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횡침선+횡주어골문이 시문된 토기도 확인된다. 칠원동 유적은 구릉지역의 사면부에서 신석기시대 집자리 1기가 조사되었으며, 횡주어골문의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이현리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움구덩 6기가 조사되었다. 신석기시대 유구는 구릉 상단부에 위치하며, 매우 소량의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는데, 횡주어골문이 확인된다.

### 3. 인천지역

#### 1) 인천 원당동·마전동/경서동/검암동/구월동/불로동 유적

원당동·마전동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집자리 3기가 조사되었는데, 해발 25m의 동-서 방향으로 뻗은 구릉지역의 정상부에 위치한다.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골문이 주류를 이룬다. 집자리의 구조와 빗살무늬토기 및 절대연대값이 신석기시대 중기의 유적과 유사하다. 경서동 유적은 전체적으로 북쪽의 능선부에서 남쪽의 공촌천으로 완만하게 낮아지는 지형을 보이며, 해발 32m 내외의 나지막한 구릉지역에 유적이 위치한다. 신석기시대 집자리 2기가 조사되었는데, 남서쪽 구릉사면에 해당한다. 집자리 2기는 중복되었으나 집자리의 바닥만 남아 있는 상태이다.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골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사격자문도 일부 보인다.

검암동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야외 화덕시설 1기가 조사되었다. 야외 화덕시설은 구릉지역의 사면 말단부에 위치한다. 야외 화덕시설 주변에서 수습된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골문과 격자문이 시문되었다. 구월동 유적은 구릉지역의 능선상에 위치하며, 신석기시대 유구는 야외 화덕시설 4기와 움구덩 2기가 조사되었다.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골문과 횡선문이 확인된다. 불로동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집자리 1기가 조사되었다. 유적의 II-1지점 D구역에 해당하는데, 낮은 구릉지역의 남사면에서 집자리가 확인되었다. 빗살무늬토기는 대부분 횡주어골문과 사격자문이 시문되었다.



[그림 8] 인천 검암동(①), 구월동(②), 중산동(한강-③), 중산동(중앙-④) 유적 빗살무늬토기

## 2) 인천 중산동 유적

중산동 유적은 한강문화재연구원 조사구역과 중앙문화재연구원 조사구역으로 나뉜다. 신석기시대 유구가 확인된 한강문화재연구원 조사구역은 21·23지점으로 2개의 구릉이 남-북 방향으로 서로 마주하고 있다. 현재 해안에서 약간 안쪽에 위치하는 구릉지역을 이루고 있으나 유적의 형성 당시에는 바닷물이 들어오는 내만형태를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유구는 비교적 원지형이 잘 남아 있는 구릉 정상부와 서쪽 사면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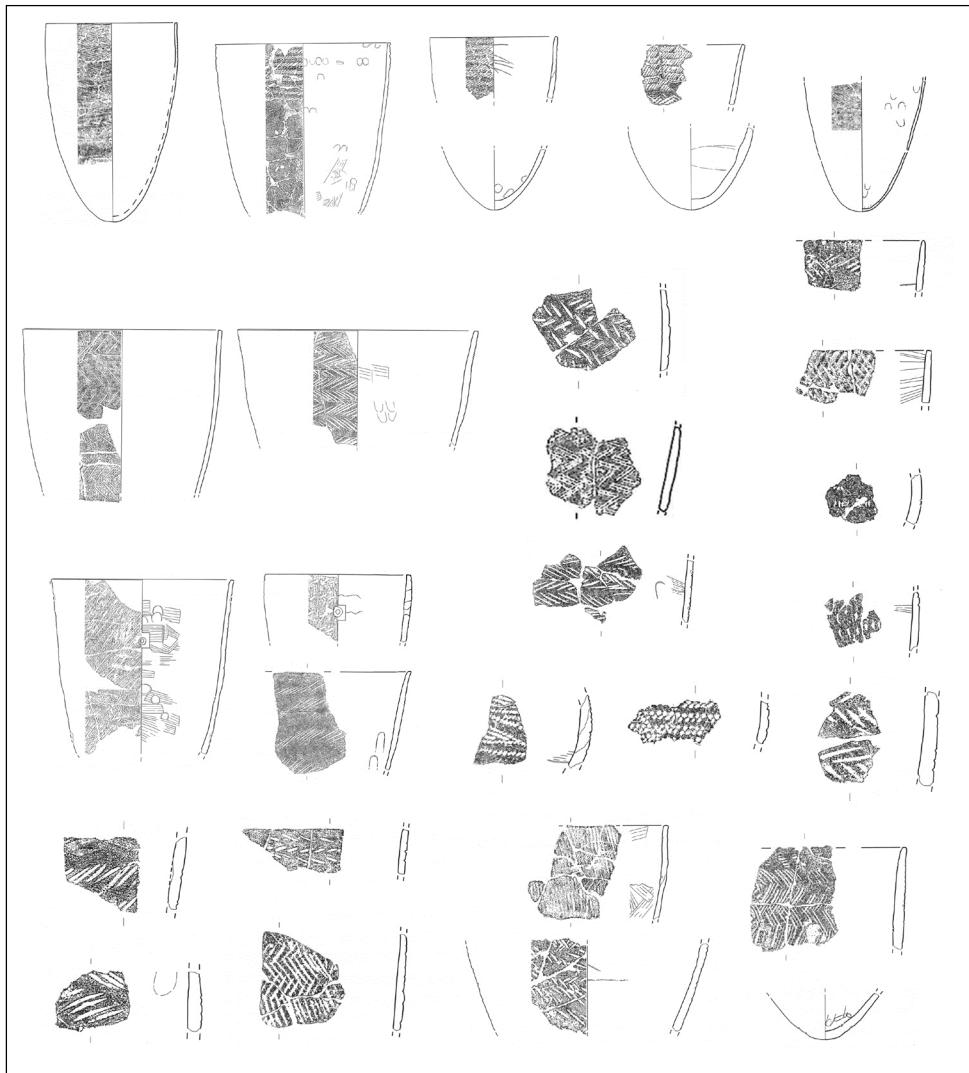
한강문화재연구원 조사구역에서는 신석기시대 집자리 31기, 야외 화덕시설 27기, 움구덩 397기가 조사되었다. 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동일문계 단치횡주어골문이 주를 이룬다. 구연부 문양은 단치구로 시문한 사선문이 가장 많으며, 단치횡주어골문과 무문도 많은 편이다. 그밖에 단사선문, 단사능형문(금강식토기와 유사), 점열문 등도 확인된다. 동체부 문양은 단치횡주어골문과 사선문이 많으며, 단사선문, 점열문, 격자문, 대상격자문, 횡사선대문, 횡단선열문, 능격문 등도 확인된다. 중앙문화재연구원 조사구역에서는 신석기시대 집자리 4기, 야외 화덕시설 54기가 조사되었다.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골문이 주류를 이루며, 사격자문, 단사선문 등이 확인된다. 빗살무늬토기 중 구순각목이 처리된 구연 아래 반관통공열문이 시문되었고, 공열문 아래는 패각면조정후 난선문을 그은 것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 3) 인천 운북동 유적

운북동 유적은 영종도의 북동쪽에 위치한 금산의 능선과 해발 20~30m 내외의 구릉지역에 위치한다. 신석기시대 유구는 해안가와 접하여 구릉의 정상부와 완만한 경사면 혹은 평탄면에 입지하고 있다. 신석기시대 유구는 집자리 18기, 야외 화덕시설 84기, 움구덩 16기가 조사되었다. 빗살무늬토기는 대부분 횡주어골문이며, 격자문과 단사선문도 확인된다. 이밖에 종단선문, 횡단선문, 장사선문, 점열문 등의 문양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도 출토되었다.

## 4) 인천 남북동 유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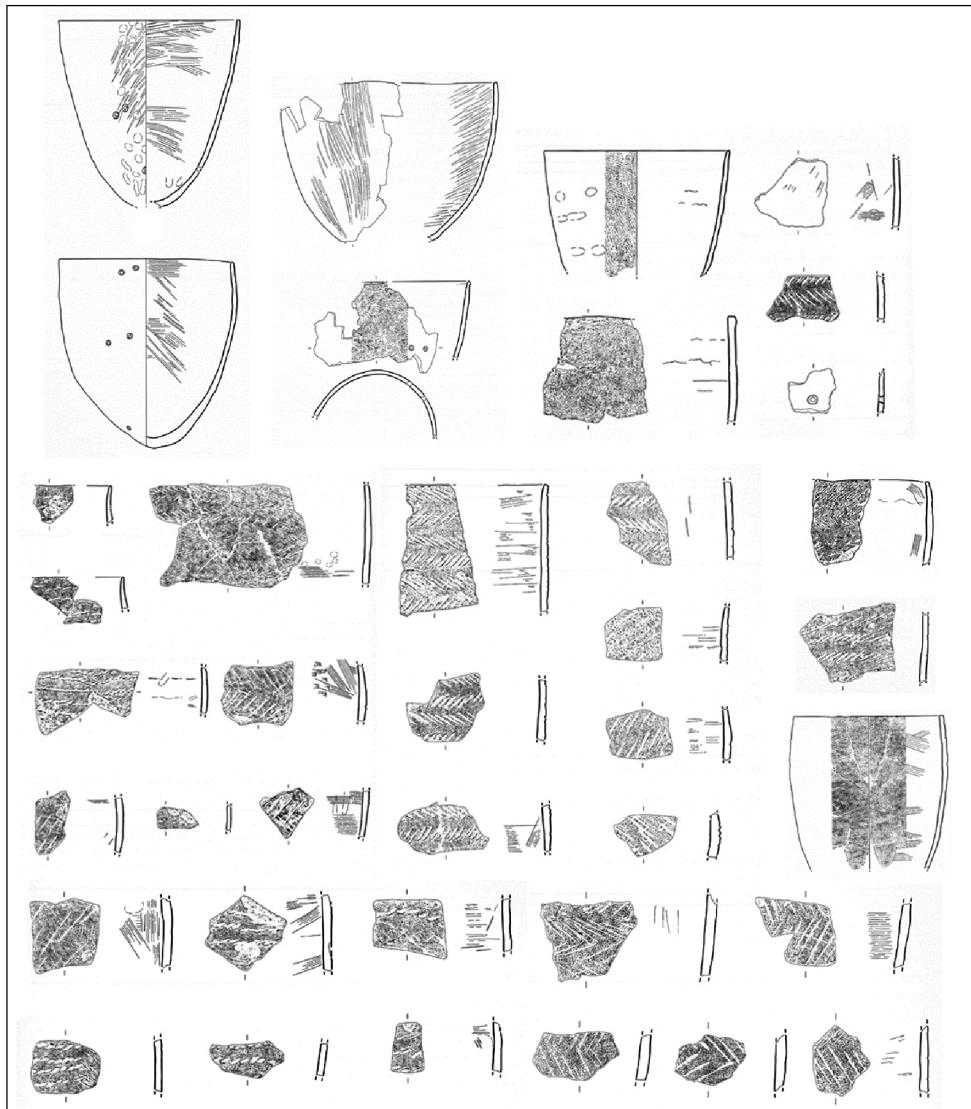
남북동 유적은 2002년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서해안지역에서 사례가 드문 대규모 야외 화덕시설 단독유적으로 학술적 중요성이 제기되어 유구의 일부만 조사한 후, 원형 그대로 보존하게 되었다. 이후 서경문화재연



[그림 9] 인천 운북동 유적 빗살무늬토기

구월에서 이 지역의 도로개설에 따라 전체 유적의 1/3정도의 면적에 대해 발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조사결과 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야외 화덕시설 90기, 패각 10개소가 조사되었다.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서해안 신석기시대 후기 조개더미유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동일계 문양만 확인된다. 대부분이 횡주어골문이며, 일부 사선(대)문, 사격자문 등이 확인된다. 남북동 유적은 1문화층에 비해 2문화층에서 무문양 토기의 비율이 높고 문양의 정형성이 흐트러지고 난삽화되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또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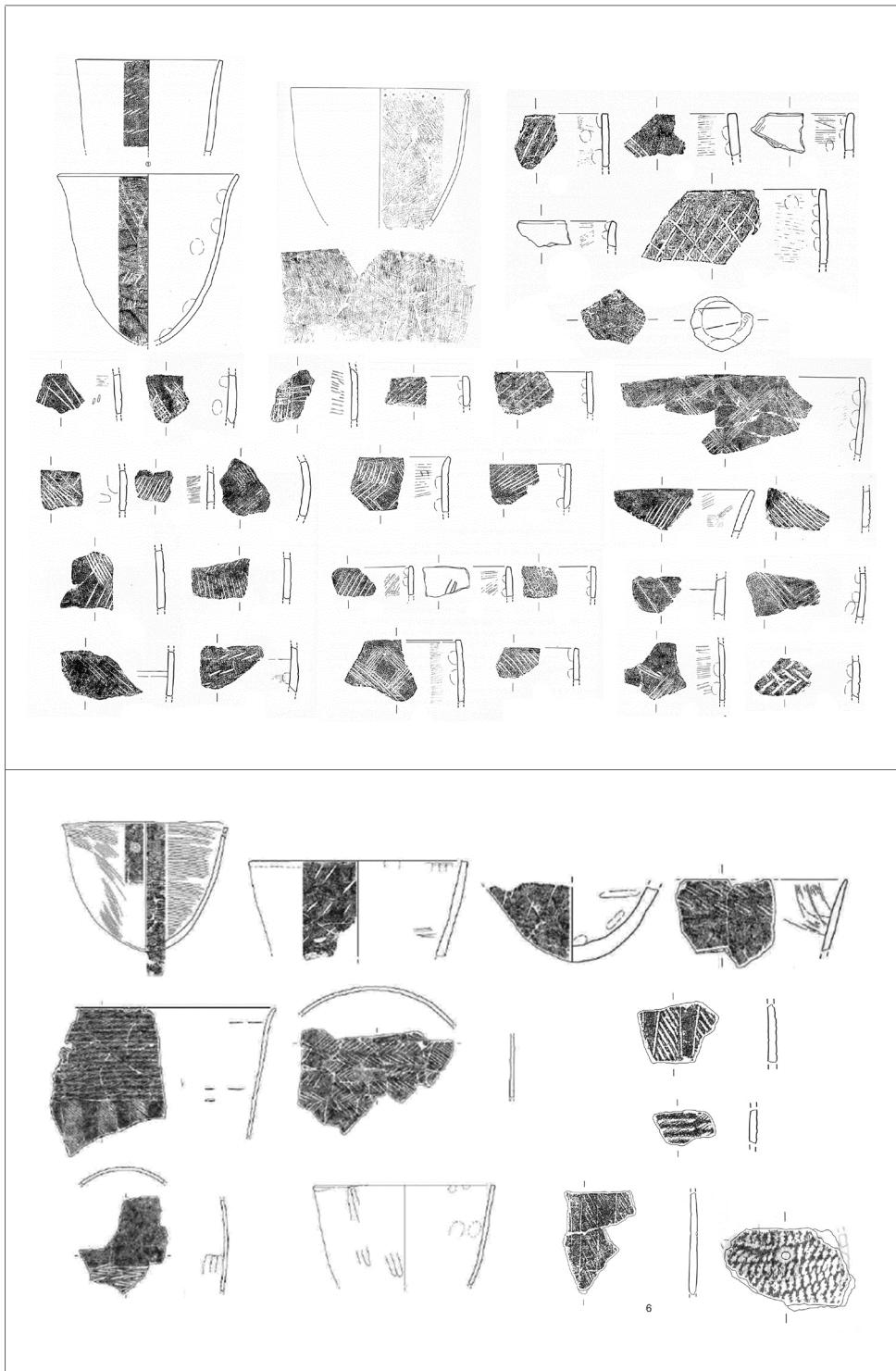


[그림 10] 인천 남북동 유적 빗살무늬토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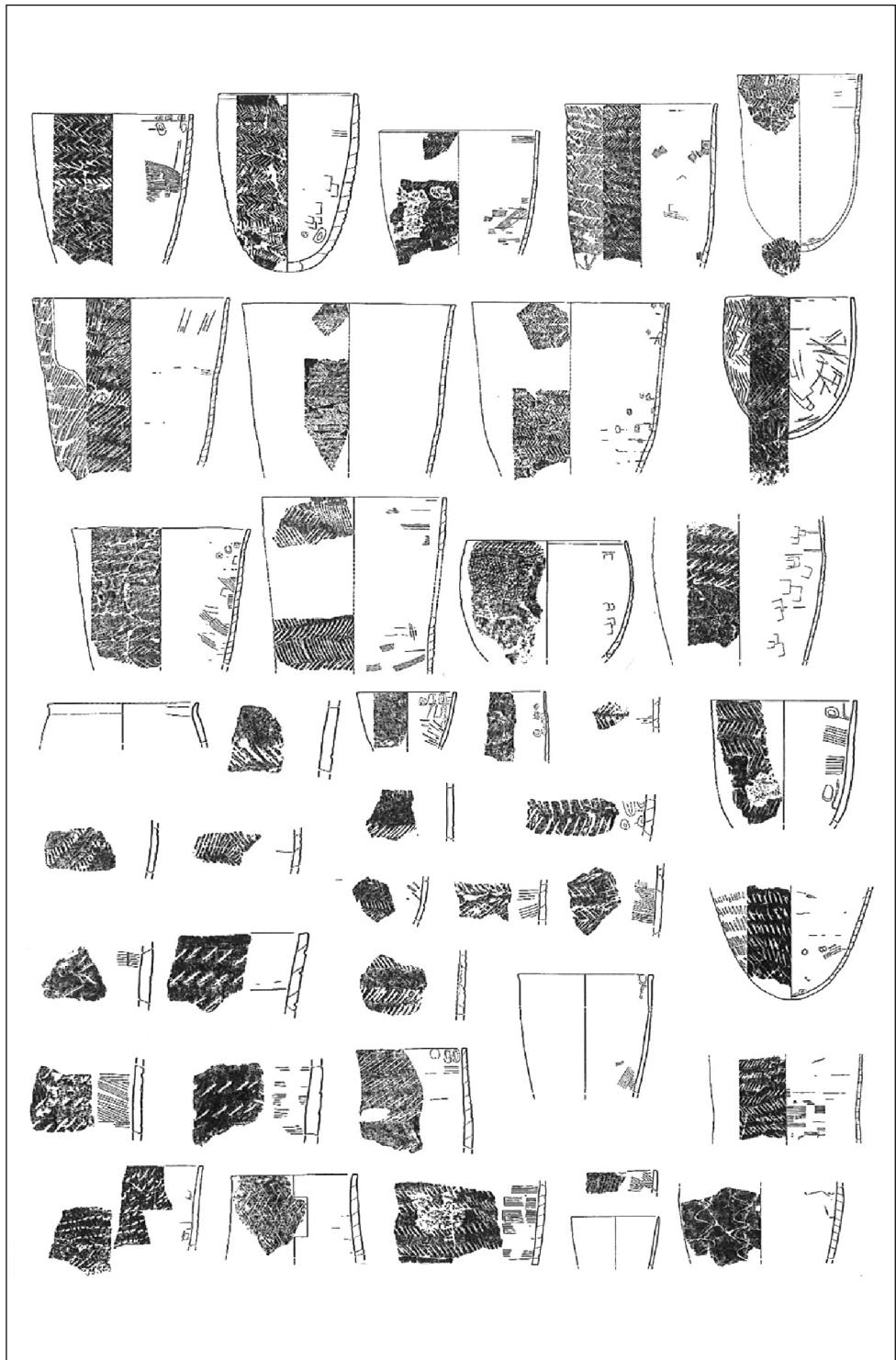
문화층 단치횡주어골문의 상하문양대의 간격이 1문화층에 비해 더 넓어지는 현상이 관찰된다.

### 5) 인천 을왕동 유적

을왕동 유적은 서울대학교박물관과 중앙문화재연구원에 의해 발굴조사 되었으며, 서울대학교박물관 조사지역은 해안과 인접한 저지성인데 반해, 중앙문화재연구



[그림 11] 인천 을왕동(위), 소야도(아래) 유적 빗살무늬토기



[그림 12] 인천 모이도 유적 빗살무늬토기

원 빨굴지역은 해발 50m 내외의 구릉사면에 일부 발달한 대지상에 위치한다. 신석기시대 유구는 집자리 6기, 야외 화덕시설 11기, 움구덩 2기, 조개더미유적 1개소 등이 조사되었다. 이 중에서 을왕동 I 유적(서울대박물관 조사구역)은 야외 화덕시설만 확인되었다. 출토된 유물 중 주목되는 것은 구연에 반관통의 공열문을 시문한 빗살무늬토기로 공열 아래에 난선문이 시문된 것이다. 을왕동 III 유적은 구분문계는 거의 없고 동일문계가 주를 이룬다. 문양은 단치구를 이용한 구연부 단사선문과 횡주어골문이 주를 이루며, 일부 삼각(능형)집선문, 사격자문, 사선문 등이 확인된다.

#### 6) 인천 소야도/모이도 조개더미 유적

소야도 유적은 소야리 선착장 동쪽에 위치한 잡목지로, 서쪽으로 뻗는 구릉 사면 하단부에 해당한다. 이 지점은 조사 당시 완만하게 해안 사구층을 이루었다. 유적에서는 야영지 1기, 움구덩 18기, 야외 화덕시설 24기, 조개더미 4개소, 추정작업장 7개소가 확인되었다. 빗살무늬토기는 대부분 동일문계 토기인데, 일부 구분문계 토기도 확인된다. 구연부에 횡주어골문 시문 후 아래쪽에 수직 구획된 침선문 안에 사선문을 채워 넣은 것이다. 이밖에 횡주어골문, 격자문, 횡사선대문이 조금씩 출토되었다.

모이도 조개더미 유적은 섬의 북서단부에 위치해 있다. 유적이 위치한 지형은 해발 42m의 섬봉우리의 기저부가 바다와 맞닿는 부분에서 ‘C’자상으로 만곡되게 형성되어 있고, 이 만곡부에 조개더미가 두텁게 퇴적되어 있다. 유적에서는 야외 화덕시설 8기와 집자리 2기가 조사되었다.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골문과 사선문계가 주류를 이루면서 일부 능문, 격자문, 파상문, 횡선문 등이 출토되었다.

## IV. 후기 빗살무늬토기의 전개양상

지금까지 중부지역의 경기와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신석기시대 후기로 판단되는 유적의 빗살무늬토기에 대해 살펴보았다.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후기 유적은 인천의 섬지역을 제외하면 대부분 1~3기의 집자리로 구성된 소규모의 마을 유적 혹은 움구덩이나 야외 화덕시설만 확인되기도 한다. 유적의 시기는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을 통해 보면, B.P. 4,500~B.P. 3,000의 절대연대값을 보이고 있다(표 5~7 참조).

먼저 기원전 3,000~2,500년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포천 거사리, 의정부 신곡동, 남양주 지금동, 구리 토평동, 성남 동판교, 성남 서판교, 인천 운북동(집자리), 인천 남북동(1문화층), 안산 흘곶 조개더미, 인천 소야도 조개더미(조개더미 하부층), 인천 모이도 조개더미 유적이 있다.

포천 거사리 유적 빗살무늬토기의 특징은 구분문계 토기가 확인된다는 점과 구획반복문토기, 문양대의 상하 간격이 좁은 사선대문이 출토된 점이다. 횡주어골문의 경우 예각을 이루며 문양대의 간격이 조밀하게 시문된 특징을 보인다. 의정부 신곡동 유적도 포천 거사리와 마찬가지로 구연부 단사집선문, 동체부에 다른 문양이 시문된 구분문계 빗살무늬토기가 확인되며, 횡주어골문도 동일한 양상을 띤다. 남양주 지금동 유적도 문양대 간격이 좁은 사선대문이 출토되고 있다. 구리 토평동 유적은 동일문계 토기의 경우 단치 횡주어골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밖에 구연부 문양으로 단·다치 횡주어골문이 가장 많으나, 단사선문, 점열문 등도 확인된다. 동체부 문양으로는 횡주어골문이 다수를 차지하며, 횡선문, 종선문, 사격자문도 소량 출토되고 있다. 구분문계 빗살무늬토기도 소량 출토되었는데, 횡단선문+횡주어골문, 횡선문+횡주어골문 등 중기의 단사집선문+횡주어골문의 패턴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인천 운북동 유적(집자리)에서도 구분문계는 소량 확인되는데, 단사선문+횡주어골문을 패턴을 보인다. 대부분은 동일문계 횡주어골문이 시문된 토기이며, 예각을 이룬다. 단사선문의 경우 대부분 7~8단씩 여러 줄이 베풀어지며, 단사선문의 사이가 넓은 편이다.

인천 남북동(1문화층) 유적의 경우에도 최근 부경문물연구원의 조사지역에서 구분문계 빗살무늬토기가 확인되고 있다. 모이도 조개더미 유적에서는 동일문계로 전면에 횡주어골문이 시문된 토기와 문양대 간격이 좁은 사선대문 빗살무늬토기가 다수 출토되었는데, 앞의 다른 유적들과 다르게 토기의 전면에 시문한 특징을 보인다. 이밖에 구분문계 빗살무늬토기도 출토되었는데, 구연부 단사선문 혹은 횡주어골문에, 동체부 횡주어골문, 격자문, 사선문, 능문 등이 시문된 것이다. 인천 소야도 조개더미 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두 가지 패턴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구분문계 빗살무늬토기로 그 중 한 점은 구연부에 연속압날기법으로 점열문을 찍어 횡주어골문을 시문하고 동체부에는 침선기법으로 수직으로 구획한 후, 사선문을 채워 넣은 문양으로 대부분 조개더미 VI층 아래층에서 출토된다. 이러한 빗살무늬토기 문양은 인근 지역의 유적에서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 문양으로 황해도 석탄리 유적에

서 유사한 것이 확인되어 주목된다. 이밖에도 성남 동판교 유적과 서판교 유적에서 도 구연부 단사집선문, 동체부 다치 횡주어골문이 시문된 구분문계의 빗살무늬토기 가 출토되고 있어 이 시기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기원전 3,000~2,500년에 해당하는 유적의 빗살무늬토기 특징은 첫째, 구분문계 빗살무늬토기가 출토 수량은 많지 않지만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횡방향으로 짧은 사선문이 연속적으로 시문된 사선대문이 대부분의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문양대의 간격이 비교적 촘촘하게 시문된 편이다. 셋째, 횡주어골문의 경우에는 문양소 간의 간격이 좁고 예각을 이루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의 빗살무늬토기는 출토 빈도에서는 차이를 보이나, 동 지역의 중기 빗살무늬토기에서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다음으로 기원전 2,500~2,000년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연천 합수리, 양주 옥정동, 남양주 덕송리, 광주 신대리, 용인 양지리 군량골, 용인 상현동, 용인 신갈동 만골, 화성 가재리, 평택 칠원동, 인천 원당동·마전동, 인천 경서동, 인천 검암동, 인천 불로동(검단), 인천 중산동(한강), 인천 을왕동Ⅲ 유적 등이 있다.

연천 합수리 유적에서는 횡주어골문 이외에 정형화된 사격자문과 종단선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양주 옥정동 유적의 횡주어골문 토기는 모이도 조개더미 유적에서 출토된 동일문계 전면 횡주어골문이 시문된 토기와 매우 유사하나, 구분문계 빗살무늬토기와 사선대문, 점열문 등이 시문된 토기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남양주 덕송리 유적에서는 옥정동 유적과 마찬가지로 동일문계 전면 횡주어골문이 출토되었는데, 문양소의 길이가 긴 것이 다수를 차지하며, 횡주어골문의 각도가 둔각인 예가 많다. 이밖에 사선대문, 사격자문, 능형문 등의 문양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다. 광주 신대리 유적과 용인 양지리 군량골 유적, 평택 칠원동 유적 등은 출토된 빗살무늬토기가 매우 소량이나 대부분 단치의 횡주어골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용인 상현동 유적에서는 횡주어골문과 사선대문의 빗살무늬토기편이 확인되는데, 횡주어골문은 문양소의 길이가 긴 것과 짧은 것 모두 확인된다. 긴 것은 문양대의 간격이 좁고, 짧은 것은 문양대의 상하 사이에 공백을 두고 시문된 특징을 보인다. 용인 신갈동 만골유적에서는 남양주 덕송리 유적에서 출토된 동일한 패턴의 사격자문이 확인되었다. 또한 횡주어골문은 용인 상현동 유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화성 가재리 출토 빗살무늬토기는 문양소의 길이가 짧은 횡주어골문이 눈에 띤

다. 인천 원당동 · 마전동을 비롯한 경서동과 검암동 유적에서는 사격자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와 둔각의 횡주어골문이 출토되는 공통점이 확인된다.

인천 중산동 유적(한강)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는 구연부에 시문된 문양으로 단치구로 시문한 사선문이 가장 많으며 횡주어골문도 다수 관찰된다. 그 밖의 문양으로는 단사선문, 단사능형문, 점열문 등도 확인된다. 동체부에 시문된 문양은 단치 횡주어골문과 사선문이 다수를 이루며 단사선문, 점열문, 사격자문, 횡단선문 등도 소량 출토되었다. 결국 중산동 유적의 빗살무늬토기는 둔각을 이루는 단치의 횡주어 골문이 주류를 이루며, 사격자문이 시문된 토기도 다수 확인되는 특징을 보인다. 인천 을왕동Ⅲ 유적의 빗살무늬토기는 동일문계가 주를 이루고 있다. 문양은 단치구를 이용한 구연부 단사선문과 횡주어골문이 주류를 이루며, 일부 사격자문, 사선대문 등이 확인된다. 대부분이 기형을 알 수 없고 작은 편이어서 문양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기 어려운 편이지만 사격자문이 비교적 다수 확인된 점과 띠대문 형태의 사선 대문이 출토되는 특징을 보인다.

지금까지 살펴본 기원전 2,500~2,000년에 해당하는 시기 유적의 빗살무늬토기 특징은 첫째, 앞 시기까지 출토되었던 구분문계 빗살무늬토기가 대부분 확인되지 않는 점이다. 둘째, 구연부에 사격자문이 시문된 빗살무늬토기가 다수의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비교적 정연하게 시문되었다. 셋째, 횡주어골문의 경우 앞 단계와 비교하여 둔각을 이루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문양소의 길이가 길면, 문양대의 간격이 좁고 둔각의 경향이, 문양소의 길이가 짧으면 문양대의 간격이 넓고 예각을 이루는 양상이 보인다. 결국 이러한 횡주어골문의 시문각도를 통한 중서부지역 중 · 후기의 빗살무늬토기를 검토한 임상택과 이혜원의 견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이는 중서부지역 중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시기에 전체적인 횡주어골문의 시문 각도가 예각화의 경향을 보이지만, 필자는 중부지역(경기 · 인천지역)의 경우 후기 이후의 빗살무늬토기에서는 지역에 따른 차이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결국 횡주어골문의 시문 각도를 통한 세분된 편년은 중서부지역의 편년설정 기준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기원전 2,000년 이후에 해당하는 유적으로는 연천 선곡리, 김포 신곡리, 파주 당동리, 남양주 호평동 지새울, 남양주 덕소리, 시흥 장현, 여주 양귀리, 인천 구월동, 인천 중산동(중앙), 인천 을왕동 I, 인천 운북동(야외 화덕시설), 인천 남북동(2문화층), 인천 소야도(야외 화덕시설), 오이도 뒷살말 조개더미 유적이 해당

한다.

연천 선곡리 유적은 본고의 검토대상 유적 중 유일하게 이중구연토기가 출토된 유적이다. 움구덩에서 출토된 유물로 기형은 옹형으로 추정되며, 이중구연의 폭은 2.2cm, 두께는 0.5cm 내외이다. 여기에 횡주어골문과 공열문이 함께 시문된 독특한 문양 구성의 구연부편이 출토되었다. 공열은 끝이 뾰족한 시문구를 이용해서 밖에서 안으로 반관통해 시문하였는데, 공열의 직경이 작고 간격도 조밀한 편이다. 파주 당동리 유적 빗살무늬토기의 가장 큰 특징은 사선대문과 횡단선문의 경우, 앞 단계의 것보다 문양대의 간격이 넓어지고 횡방향으로의 정연성이 떨어지는 점이다. 또한 횡주어골문의 경우에도 매우 넓은 둔각의 다치찰과상 횡주어골문이 다수 확인된다.

남양주 호평동 지새울 유적도 다른 유적과 마찬가지로 횡주어골문이 다수를 차지하는데, 사선대문과 횡단선문이 주목된다. 사선대문은 횡방향으로 수평하게 시문되지 않고 불규칙적이며, 문양대의 상하 간격이 넓은 편이다. 또한 다치찰과상의 횡주어골문이 다수 출토되고 있어 특징적이다. 여주 양귀리 유적에서 출토된 사선대문의 빗살무늬토기도 기본 패턴은 갖추고 있지만, 문양소의 간격이 불규칙하거나 넓어지는 등 일정하지 않은 특징을 보이며, 난삽한 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다수 확인된다.

인천 중산동 유적(중앙)은 횡주어골문과 무문양 토기가 주류를 이루며, 빗살무늬 토기 중에는 구순각목이 처리된 구연 아래에 반관통공열문이 시문되었고, 공열문 아래 다치상의 횡주어골문이 시문된 것도 확인되었다. 이밖에 사격자문, 단사선문 등도 일부 있으나 전체적으로 토기의 문양이 난삽화되고 무문양화된 토기가 많다. 인천 을왕동 I 유적에서도 공열문 빗살무늬토기가 출토되었으며, 구연의 1cm정도 아래에 밖에서 안으로 반관통의 공열문이 일렬 시문되어 있다. 각 구멍의 지름은 0.5cm정도로 거의 일정하지만 구멍간 거리는 일정하지 않다. 공열의 바로 아래부터 사선문이 어지럽게 시문되어 있으며, 일부 겹치는 부분은 사격자문이 나타난다. 인천 남북동 유적(2문화층) 빗살무늬토기는 횡주어골문이 주류를 이루며, 횡단선문, 사선대문이 다수 확인되는 특징을 보인다. 앞서 살펴본 파주 당동리, 남양주 호평동과 여주 양귀리 유적과 마찬가지로 정연성이 떨어지는 양상을 띤다.

마지막 단계의 빗살무늬토기 특징은 첫째, 앞 시기에 보이지 않던 이중구연토기와 공열문 빗살무늬토기가 확인된다는 점이다. 공열문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반관통된 형태를 보인다. 둘째, 빗살무늬토기 문양 중 사선대문과 횡단선문의 반복적인 문양 시문패턴이 앞 시기의 것보다 문양대의 간격이 넓어지고 불규칙하게 시문되는 특

징을 보인다.셋째, 다치찰과상의 횡주어골문과 무문양의 수량이 증가하고 전체적으로 토기의 문양이 난삽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양상을 보인다.

[표 2]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후(말)기 유적의 상대편년안

시기	분기	유적	연대 (B.C.)	비고
후기	전반	포천 거사리, 의정부 신곡동, 남양주 지금동, 구리 토평동, 성남 동판교, 성남 서판교, 인천 운북동(집자리), 인천 남북동(1문화층), 안산 흘곶, 인천 소야도(조개더미 하부층), 인천 모이도	3,000~2,500	
	후반	연천 합수리, 양주 올정동, 남양주 덕송리, 광주 신대리, 용인 상현동, 용인 양지리, 용인 신갈동, 화성 가재리, 평택 칠원동, 인천 원당동·마전동, 인천 경서동, 인천 검암동, 인천 불로동, 인천 중산동(한강), 인천 을왕동Ⅲ	2,500~2,000	
말기		연천 선곡리, 파주 당동리, 김포 신곡리, 남양주 호평동, 남양주 덕소리, 시흥 장현, 여주 양귀리, 인천 구월동, 인천 중산동(중앙), 인천 을왕동Ⅰ, 인천 운북동(야외 화덕시설), 인천 남북동(2문화층), 인천 소야도(야외 화덕시설), 오이도 뒷살막	2,000~	

지금까지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후(말)기 유적의 상대편년에 따른 빗살무늬토기 양상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기원전 3,000년에서 기원전 2,000년까지는 후기, 기원전 2,000년 이후는 말기로 시기구분을 하였다. 중부지역에서 전시기에 걸쳐 확인되고 있는 횡주어골문의 경우에는 후기 전반에는 예각시문이 다수 확인되며, 후기 후반에는 둔각시문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후기에서 말기까지 일정한 방향으로의 뚜렷한 변화과정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후기는 구분문계와 정형화된 사격자문의 존재유무에 따라 구분문계는 있고 사격자문이 없으면 전반, 구분문계가 없고 사격자문이 있으면 후반으로 세분하였다. 사선대문은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말기까지 이어지는데, 후기에는 문양대의 상하 간격이 좁은 정형화된 양상을 보이다가 말기로 가면서 문양대의 상하 간격이 넓어지고 횡방향으로의 시문방향도 불규칙하게 된다. 후기와 말기의 구분은 이중구연토기와 공열문 빗살무늬토기(+ 횡주어골문 또는 사격자문 등)의 등장으로 볼 수 있다. 중부지역에서 이중구연토기와 공열문 빗살무늬토기의 출토 예가 매우 소수여서 향후 자료의 증가를 기다려 보아야겠지만, 중부지역에서는 신석기시대 가장 늦은 단계에 등장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중에서 사선대문(띠대문)의 변화상은 필자가 이전 논고(2005)를 통해 시기에 따른 변화과정을 설정한 바 있다(표 3 참조). 당시에는 중서부지역의 대상반복문(구획반복문) 토기에 중점을 두고 분석한 것인데, 이번 중부지역 후기 빗살무늬토기의

[표 3] 대상반복문(구획반복문)토기의 변화모식도(구자진 2005, 일부수정)

형식	대상반복문 I 식 → 대상반복문 II a식 → 대상반복문 II b식		
	B.C. 3,500년	B.C. 2,000년	
토기			

[표 4]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후(말)기 빗살무늬토기 편년

시기	주요특징	주요 유물
전반	구분문계 잔존, 대상반복문 II a식, 예각시문 횡주어골문	
후기	구분문계 소멸, 사격자문(구연) 유행, 둔각시문 횡주어골문	
말기	이중구연토기, 공열문(반관통) 토기, 대상반복문 II b식, 무문양 증가	

1·5·6. 포천 거사리, 2. 안산 흘곶, 3. 인천 운봉동, 4. 인천 모이도, 7. 의정부 신곡동, 8. 인천 소야도, 9. 연천  
합수리, 10. 양주 옥정동, 11·13. 인천 중산동(한강), 12·15. 인천 을왕동Ⅲ, 14. 인천 경서동, 16·17. 파주 당동리,  
18. 인천 남북동, 19. 인천 을왕동Ⅰ, 20·21. 연천 선곡리, 22. 인천 중산동(중앙), 23. 여주 양귀리

검토 결과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다만 각 형식에 따른 절대연대의 경우, 당시 대상반복문Ⅱa식에서 대상반복문Ⅱb식으로 변화과정을 기원전 3,000년을 기준으로 두었는데, 이번 논고를 통해 기원전 2,500년~2,000년 경에 변화과정이 나타나게 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V. 맷음말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후기의 빗살무늬토기 편년은 최근에 이르러서야 세분된 편년안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지역 후기와 말기의 구분은 문양의 난삽화와 무문양화의 경향성만 인지될 뿐 후기와 말기를 구분할 수 있는 유물의 뚜렷한 변화상을 제시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었다.

본고에서는 후기 이후의 유적에서 출토된 빗살문늬토기를 검토하여 후기를 전반과 후반으로 세분하였고, 이중구연토기와 공열문 빗살무늬토기(+횡주어골문, 사격자문), 사선대문(띠대문)의 변화 과정을 통해 후기와 말기의 구분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후기 유적의 빗살무늬토기는 수량도 많지 않고 작은 편으로 출토되어 전체적인 빗살무늬토기의 양상을 파악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남부지역의 후기와 말기처럼 표지적인 유물을 설정하지 못하였다.

중부지역의 말기에 해당하는 이중구연토기는 남해안 혹은 남부지역에서는 후기에 등장하고 있는데 반해, 중부지역에서는 비교적 늦은 시기인 말기에 확인되고 있다. 또한 남부내륙지역이나 충청내륙지역에서 확인된 이중구연토기도 후기에 가까운 연대값을 보이고 있어 중부지역의 이중구연토기는 남부지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일부 신석기에서 청동기시대로의 전환기 유물로 이중구연토기를 언급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연대값과 지역적인 선후관계에 있어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

본고에서 다룬 중부지역의 신석기시대 후기 빗살무늬토기를 통해 그동안 잘 인지하지 못했던 변화상들이 조금씩 밝혀지면서 향후 중부동해안지역 혹은 충청내륙지역의 후(말)기 빗살무늬토기에 대한 검토도 가능해질 것이라 기대된다.

투고일 2019. 12. 13 | 심사완료일 2020. 1. 22 | 게재확정일 2020. 1. 23

[표 5]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후(말)기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 1

유적	유구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B.P.)	비고
포천 거사리	집자리	4360±40 / 4350±40	
파주 당동리	1-1호 집자리	3390±100	
	1-1호 야외 화덕시설	3740±50	
	7-1호 야외 화덕시설	3910±50	
	7-2호 야외 화덕시설	3960±50	
	7-3호 야외 화덕시설	3730±50	
양주 옥정동	2호 움구덩	4160±50	
김포 신곡리	집자리	3120±40	
남양주 덕송리	1-1호 집자리	4000±50	
	1-2호 집자리	4040±50	
	2호 집자리	3640±40	
	1-1호 야외 화덕시설	3970±50	
	1-2호 야외 화덕시설	4080±50	
	1-3호 야외 화덕시설	4060±50	
	2호 야외 화덕시설	3950±50	
	3호 야외 화덕시설	4010±50	
	4호 야외 화덕시설	3830±50	
	2호 집석유구	4050±50	
남양주 지금동	집자리	4360±30	
남양주 호평동	1호 집자리	3930±60	
	2호 집자리	3860±50	
	3호 집자리	4040±60 / 4050±60 / 3990±60	
	1호 야외 화덕시설	3820±60 / 3700±60	
	2호 야외 화덕시설	3930±60 / 4220±120	
	3호 야외 화덕시설	4090±50 / 4100±50 / 4130±50	
남양주 덕소리	4호 야외 화덕시설	4080±50 / 4220±50 4080±50 / 4170±60	
	움구덩	3900±50	
구리 토평동	A-1호 집자리	4020±30	
시흥 장현	집자리	3520±30	
성남 동판교	10호 집자리	4140±50	
여주 양귀리	집자리	3580±50	
용인 신갈동	움구덩	4200±60 / 4020±60	
인천 원당동 · 마전동	1호 집자리	4330±40	
	3호 집자리	4380±40	
인천 경서동	1호 집자리	4340±50 / 4430±40 / 4340±50	
인천 검암동	야외 화덕시설	4210±50 / 4130±70	
인천 구월동	1호 야외 화덕시설	3660±50	

[표 6]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후(말)기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 2

유적	유구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B.P.)	비고
인천 중산동	23-1호 집자리	4160±25	한강문화재
	23-5호 집자리	4180±50	한강문화재
	23-4호 집자리	3990±50	한강문화재
	23-6호 집자리	4410±50	한강문화재
	23-10호 집자리	4083±23	한강문화재
	23-12호 집자리	4190±50	한강문화재
	23-1호 야외 화덕시설	3780±50	한강문화재
	23-3호 야외 화덕시설	4170±50	한강문화재
	23-5호 야외 화덕시설	4070±50	한강문화재
	23-6호 야외 화덕시설	4040±50	한강문화재
	23-7호 야외 화덕시설	4270±50	한강문화재
	21-22호 집자리	3740±50	한강문화재
	21-24호 집자리	4030±50	한강문화재
	21-25호 집자리	4260±50	한강문화재
	21-27호 집자리	4140±50 / 3690±50	한강문화재
	21-26호 야외 화덕시설	3820±50	한강문화재
	21-29호 집자리	4240±50	한강문화재
	21-30호 집자리	4330±50	한강문화재
	21-31호 집자리	4460±50	한강문화재
인천 중산동	(2-1)1호 야외 화덕시설	3620±50	중앙문화재
	(2-1)2호 야외 화덕시설	3940±80	중앙문화재
	(2-1)3호 야외 화덕시설	4220±60	중앙문화재
	(2-1)1호 집자리	3730±80	중앙문화재
	(2-1)2호 집자리	3650±60 / 3670±50	중앙문화재
	(2-1)3호 집자리	4260±60	중앙문화재
	(2-2)2호 야외 화덕시설	3840±50	중앙문화재
	(2-2)4호 야외 화덕시설	3730±50	중앙문화재
	(2-2)5호 야외 화덕시설	3350±40	중앙문화재
	(2-2)6호 야외 화덕시설	3370±50	중앙문화재
	(2-2)7호 야외 화덕시설	3360±50	중앙문화재
	(2-2)1호 집자리	4400±50	중앙문화재
	(2-3)2호 야외 화덕시설	3390±50	중앙문화재
	(3)4호 야외 화덕시설	4060±80	중앙문화재
	(3)6호 야외 화덕시설	3820±60	중앙문화재
	(3)7호 야외 화덕시설	3430±50	중앙문화재
	(3)8호 야외 화덕시설	4220±50	중앙문화재
	(3)9호 야외 화덕시설	3390±50	중앙문화재
	(3)10호 야외 화덕시설	3560±50	중앙문화재

[표 7]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후(말)기 유적의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 3

유적	유구	방사성탄소연대측정값(B.P.)	비고
인천 운북동	1-1호 집자리	4500±60	
	2-3호 집자리	4240±50	
	6-3호 집자리	4380±50	
	6-7호 집자리	3480±50	
	6-10호 집자리	4430±60	
	2-19호 야외 화덕시설	3590±50	
	2-24호 야외 화덕시설	3540±50	
	2-28호 야외 화덕시설	3150±50	
	2-47호 야외 화덕시설	3770±50	
인천 남북동	3호 야외 화덕시설	3500±40	서울대박물관
	9호 야외 화덕시설	3840±40	서울대박물관
	32-1호 야외 화덕시설	4440±50	서울대박물관
	32호 야외 화덕시설	4450±50	서울대박물관
	50호 야외 화덕시설	4650±40	서울대박물관
	50호 연접야외 화덕시설	4700±60	서울대박물관
	52호 야외 화덕시설	4620±60	서울대박물관
	61호 야외 화덕시설	3910±60 / 3990±50	서경문화재
	파각더미4	3590±50 / 3670±50	서경문화재
	22호 야외 화덕시설	4180±50	서경문화재
	23호 야외 화덕시설	4240±50 / 4200±50	서경문화재
	26호 야외 화덕시설	4220±50 / 4240±50	서경문화재
	29호 야외 화덕시설	3790±50	서경문화재
인천 을왕동 III	1호 집자리	4510±90	
	3호 집자리	4220±70	
인천 을왕동 I	5호 야외 화덕시설	3810±40	
인천 블로동(검단)	집자리	4120±40	
인천 소야도	6호 야외 화덕시설	2911±30	
	9호 야외 화덕시설	3109±33	
	15호 야외 화덕시설	2890±40	
	3번 조개더미(Ⅱ층)	3640±40	
	3번 조개더미(Ⅵ층)	4470±40	
	3번 조개더미(Ⅷ층)	4590±40	

## 참고문헌

- 古澤義久, 2011, 「신석기시대 중기·만기 한일토기문화교류의 특질」, 『한국신석기연구』22, 한국신석기학회.
- 구자진, 2005, 「신석기시대 대상반복문토기에 대한 검토」, 『한국신석기연구』9, 한국신석기학회.
- 김장석 · 양성혁, 2001, 「중서부 신석기시대 편년과 폐총이용전략에 대한 새로운 이해」, 『한국고고학보』45, 한국고고학회.
- 동삼동폐총전시관, 2004, 『신석기시대의 토기문화』.
- 동삼동폐총전시관 편, 2009, 『한반도 신석기시대 지역문화론』.
- 소상영, 2013, 『한반도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생계·주거체계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4,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토기형식 연구」, 『한국 신석기시대 토기와 편년』,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7, 진인진.
- 송현경, 2012, 「신석기시대 후·말기 이중구연토기의 전개과정」,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숙정, 2008, 「중서부지역 신석기문화 연구의 성과와 전망」, 『한국신석기연구』15, 한국신석기학회.
- 신종환, 2004, 「신석기시대 금강식토기문화의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승모, 1999, 「서해안 신석기시대 편년 문제」, 『고문화』54, 한국대학박물관협회.
- \_\_\_\_\_. 2003, 「금강식토기와 능격문의 형성과정에 대한 예비적 고찰」, 『호남고고학보』17, 호남고고학회.
- \_\_\_\_\_. 2017, 「인물로 본 신석기시대 연구사」, 『한국 신석기시대 고고학사』,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35, 진인진.
- 양성혁, 2001, 「서해안 신석기문화에 대한 일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_\_\_\_\_. 2017, 「중부지역 및 북부지역 즐문토기 연구사」, 『한국 신석기시대 고고학사』,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35, 진인진.
- 이동주, 2014, 「신석기시대 말기 토기의 양상과 전개」, 『한국 신석기시대 토기와 편년』,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7, 진인진.
- 이영덕, 2014, 「서북한지역의 토기편년」, 『한국 신석기시대 토기와 편년』,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7, 진인진.
- 이혜원, 2014, 「한반도 중서부지역 신석기시대 중·후기 토기의 변천」,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상택, 1999a, 「서해중부지역 빗살무늬토기 편년 연구」, 『한국고고학보』40, 한국고고학회.
- \_\_\_\_\_. 1999b, 「한반도 중부지역 신석기시대 중기 토기의 양상」, 『선사와 고대』13, 한국고대학회.
- \_\_\_\_\_. 2006, 『한국 중서부지역 빗살무늬토기문화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2010, 「신석기시대 서해중부지역 상대편년과 취락구조의 특징」, 『한국상고사학보』70, 한국상고사학회.
- \_\_\_\_\_. 2012, 「신석기시대 중서부지역 상대편년의 종합과 병행관계」, 『한국 신석기문화의 양상과 전개』,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6, 서경문화사.
- 임효재, 1983, 「서해안지역의 즐문토기문화: 편년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14 · 15호, 한국고고학회.
- 田中聰一, 2000, 「한반도 중·남부지방 신석기시대 토기문화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인수, 2006, 「발기 즐문토기의 성립과 전개」, 『한국신석기연구』12, 한국신석기학회.
- \_\_\_\_\_. 2014, 「즐문토기의 편년 연구와 과제-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한국 신석기시대 토기와 편년』, 중앙문화재연구원 학술총서 17, 진인진.
- 한영희, 1978, 「한반도 중·서부지방의 신석기문화」, 『한국고고학보』5, 한국고고학회.
- \_\_\_\_\_. 1996, 「신석기시대 중·서부지방 토기문화의 재인식」, 『한국의 농경문화』5, 경희대학교박물관.
- ※ 유적 발굴(약)보고서는 지면 관계상 생략함.

# Chronology and Development of Comb-Pattern Pottery in Central Region during Late Neolithic Age

Koo, Ja-Jin(Manager, Land & Housing Museum)

The chronology of the Midwestern Neolithic Age is well-researched through the Goongsan Culture and chronology; the detailed chronology still needs more research. Since the 2000s, surveys of Neolithic villages in the Midwest generated much research. However, the focus has been biased towards specific comb-pattern pottery or on limited time periods. Furthermore, detailed chronology did not receive favorable perspective.

The recent increase in the late Neolithic age and also in radiocarbon dates provides new opportunities to examine comb-pattern pottery of late Neolithic age.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late Neolithic age and comb-pattern pottery in the central region.

Based on the pottery patterns, Late Neolithic is from 3000 B.C. to 2000 B.C. and Terminal Neolithic from 2000 B.C. onwards. The distinction between Late and Terminal Neolithic is based on the pattern in the pottery. The specific pattern of comb-like pottery shows changes over tim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Late Neolithic period and the Terminal Neolithic period is marked by the appearance of the double-rimmed pottery and the perforated-rim comb-pattern pottery.

The central region, in contrast to the southern region, does not seem to have established a representative type culture of the Late Neolithic period. As future research sheds light onto the Late Neolithic comb-pattern pottery of the central

region, more research will help us understand the Late/Terminal Neolithic comb-patterned pottery of the Central Eastern region and the Chungchung Inland region.

**Key words : NeolitNeolithic, Chronology, Late Neolithic, Central region, Double-rimmed pottery, Perforated-rim comb-pattern pottery**

